

# 고려속요 「相杵歌」의 正體에 대한 연구

— 「방아노래」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

정한기(전주교대)

##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방아노래」와의 대비와 「상저가」의 정체 |
| 2. 「상저가」 해석의 쟁점 | 4. 맺음말                    |

## 1. 머리말

고려속요 「相杵歌」는 현재 『시용향악보』에만 수록되어 전한다. 노래의 제목과 노랫말에 있는 의성어·반복구 등을 보아 원래 방아 찼을 때 부른 민요가 궁중에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노래이다.<sup>1)</sup>

1) 「상저가」에서 相은 방아 소리를 내어 권면한다는 뜻(送杵聲, 以聲音自勸也)이고 杵는 절구 공이란 뜻으로 相杵는 방아 찼을 때 소리를 낸다는 뜻이다. 「방아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노랫말에 있는 「듣기둥」은 방아를 찼을 때 나는 소리의 의성어이며, 노랫말에서 반복되는 「히애, 히야해」는 받는 소리의 성격이 강하다. 「방아노래」가 선후창 민요인 점을 감안하면 「상저가」는 「방아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대체로 「상저가」가 「방아노래」를 수용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병기 선생과 박병채 선생은 상저의 뜻과 「듣기둥」이란 의성어를 근거로, 성효경 교수는 「히애, 히야해」라는 반복구를 근거, 정기호 선생은 노랫말이 단순하다는 점을 근거로 「상저가」가 「방아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이규호 선생은 기능요로서의 「방아노래」가 여요에 수용된 것이라고 하였고, 조동일 선생은 절구방아를 돌이서 찼으면서 부른 노래라고 하였다. 이병기, 『시용향악보의 한 고찰』, 『고려가요연구』, 정음문화사, 1990, 25면; 박병채, 『고려가요의 어석연구』, 이우출판사, 1980; 이규호, 「방아노래의 문학적 수용양상에 대하여」, 『어문학』43집, 한국어문학회, 1983; 정기

「상저가」가 민요가 수용된 노래라면 민요 그대로가 수용된 것인지 민요가 수용되면서 변개된 것인지 민요의 제목만이 수용되고 노랫말은 창작된 것인지 등이 의문이며, 민요가 수용되면서 변개되었다면 어떤 민요가 수용되었고 어떻게 변개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은 「상저가」의 正體가 무엇인 가라는 물음으로 요약된다. 「상저가」의 정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방아노래」와의 대비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고의 목적은 「방아노래」와의 대비로 「상저가」의 정체를 살펴보는 것이다.<sup>2)</sup>

「방아노래」란 題名의 민요에는 논맬 때 부른 「방아노래」, 통속민요 「방아노래」, 방아 쥘 때 부른 「방아노래」 등이 있다.

논맬 때 부른 「방아노래」는 받는 소리가 '-방아'로 끝나는 「논매는소리」를 말한다. 메기는 소리의 내용은 남녀의 노골적인 연정, 작업에 대한 지시, 농사가 대본이라는 자부심, 농사를 지어 나라에 바치고 부모를 봉양한다는 것 등이다.<sup>3)</sup> 이러한 내용은 『맹자』<sup>4)</sup>, 「모심는소리」·「논매는소리」 등을 포함한 논농사 민요, 가사 「농부가」·가사 「상저가」 등 농사를 소재로 한 가사 작품 등에 두루 보인다. 논맬 때 부른 「방아노래」가 「상저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호, 『고려시대 시가의 연구』, 인하대학교 출판부, 1986; 성호경, 「유구곡과 상저가의 시형」, 『어문학』52집, 한국어문학회, 1991, 271-285면;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제4판), 지식산업사, 2006, 140~141면.

2) 고려속요 「상저가」에 대한 연구에는 노랫말의 내용과 시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차지하며 고려속요 「상저가」와 민요 「방아노래」를 대비하여 「상저가」를 정체를 살펴본 연구는 드문 편이다. 「상저가」와 「방아노래」를 비교한 연구에는 이규호 선생의 논의가 있다. 이규호 선생은 『한국민요집』에 수록된 「방아노래」를 자료로 하여 「방아노래」에는 애정과 한·자연의 미·생활고·인생무상 등과 같이 노동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며 「상저가」와 유사한 작품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한국민요집』에는 打습이란 항목에 「방아노래」를 수록되어 있고 그 노랫말이 방아 쥘 때 부른 「방아노래」인지 통속민요 「방아노래」인지 논맬 때 부른 「방아노래」인지 구분되지 있지 않다. 따라서 방아 쥘 때 부른 「방아노래」와 비교한다면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어 「상저가」와 「방아노래」를 대비한 결과가 명확하다고 단정하기에는 주저된다. 내용에 대한 연구는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192면; 이병기, 앞의 논문; 김갑기, 「相杵歌放」, 『한국어문학연구』11, 동악어문학회, 1978, 65-80면; 조혜숙, 「〈상저가〉의 의미구조 분석」,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당, 1992, 219-227면; 조동일, 앞의 책 등이다. 詩形에 대한 연구는 성호경, 앞의 논문이다. 「상저가」와 「방아노래」를 대비한 연구는 이규호, 앞의 논문, 83-105면이다.

3) 권오경, 「방아노래의 존재 및 변모양상-기능을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 14집, 문학과 언어 연구회, 1993.

4) 『맹자』 「양혜왕 상」. “이렇기 때문에 현명한 임금은 백성들의 산업을 제도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여) 위로는 부모님을 봉양하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기르게 한다(是故明君制民之產, 必使仰足以事父母, 俯足以畜妻子).”

보이나 「상저가」의 근원이 되는 민요가 논밭 때 부른 「방아노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통속민요 「방아노래」란 받는 소리가 ‘-방아’로 끝나는 비기능요로 여러 지역에서 불려진 유행하는 노래이다. 신재효 작 「방이打鈴」·「訪花打鈴 十二首」, 판소리 삽입가요 「방아타령」(「변강쇠가」의 삽입가요 「방아타령」·「짚은방아타령」, 「심청가」의 삽입가요 「방아타령」), 경기민요 「방아타령」·「짚은방아타령」·「경복궁타령」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신재효 작 「방이打鈴」·「訪花打鈴 十二首」은 신재효가 통속민요 「방아노래」를 바탕으로 경복궁 落成宴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으로 경복궁 낙성연 이후 급속히 퍼진다.<sup>5)</sup> 「방이打鈴」·「訪花打鈴 十二首」은 연장체로 매장은 ‘전렴6)→본사→중렴7)→결사’로 전개되고 중렴에 ‘-방아’라는 반복구가 있다. 주된 내용은 찬양과 기원, 취락, 이별의 슬픔, 육체적인 성애의 골계·육설의 골계 등이다.<sup>8)</sup> 판소리 삽입가요 「방아타령」은 나무하는 아이<sup>9)</sup>, 사당패 여인<sup>10)</sup>, 방아 짚는 여인들의 입에 익숙할 정도로 널리 퍼진 통속민요이다. 주된 내용

5) 성무경, 「신오위장 所作 <방아타령>의 형성증위와 단잡가」, 『한국시가연구』12, 한국시가학회, 2002.

6) 「방이打鈴」의 전렴은 “노자 조다”이고 「訪花打鈴 十二首」의 전렴은 “노즈 죠타”이다. 「방이打鈴」과 「訪花打鈴 十二首」의 노랫말은 신재효, 강한영 교주, 『신재효 판소리사설집』, 교문사, 685-687면 참조.

7) 「방이타령」의 중렴은 “에요 에혜용 어후우겨라 방이로다”이고 「방화타령」의 중렴은 “於樂於樂 어화우여로 訪花로고나”이다.

8) 「방이打鈴」은 총 10장이고 「訪花打鈴 十二首」은 총 12장이며 중복되는 것이 7개의 장이다. 「방이타령」의 내용은 제1-2장에서는 경복궁의 뛰어남에 대한 찬양과 임금의 장수·국가의 태평에 대한 기원이고, 제3-6장에서는 이별의 슬픔이고, 제7-9장에서는 인생무상과 醉樂이고, 제10장에서는 오입장이 남편을 둔 아내의 골계스런 탄식이다. 「訪花打鈴 十二首」에서 「방이타령」과 중복된 7장을 제외한 내용은 제6장에서는 취락이고 제8·10장에서는 육체적인 性愛로 골계를 형성하며 제11장에서는 시누이에 대한 육설로 골계를 형성하며 제12장에서는 이별의 슬픔이다. 찬양과 기원, 취락, 이별의 슬픔, 육체적인 성애의 골계·육설의 골계 등이 공통된 내용이다.

9) 「변강쇠가」에서 변강쇠가 나무하러 갈 때 마을의 여러 나무하는 아이들이 나무하러 모여 와서 지게 목발 뚜드리며 「방이打鈴」, 「山打鈴」, 「農夫歌」, 「牧童歌」 등을 부르며 장난을 한다. 신재효, 강한영 교주, 앞의 책, 547면.

10) 「변강쇠가」에서 변강쇠를 치상하려던 뱀독이와 각설이가 몸이 붙어 움생원의 참외밭에 머물게 된다. 그때 사당패가 지나가자 그들에게 놀이를 시킨다. 사당패에서 월하선이란 여인이 나서며 「방아打鈴」을 부르고 이어 금옥이란 여인이 나서며 「짚은방아打鈴」을 부른다. 신재효, 강한영 교주, 앞의 책, 609면.

은 방아 찧기를 남녀의 육체적인 性愛에 빚댄 것이다. 골계가 유발된다. 결국 신재효가 지은 「방아노래」와 판소리 삽입가요 「방아노래」는 방아찧기 노동과 관련 없는 육체적인 성애, 골계, 이별의 슬픔 등의 내용이 중심으로 고려속요 「상저가」와는 거리가 있다.<sup>11)</sup>

경기민요 「방아타령」·「жат은방아타령」·「경복궁타령」은 이별의 슬픔, 구애, 경치 묘사, 판소리의 한 대목 등이 내용으로 노동과 관련이 없다. 노동과 관련된 노랫말이 있는 것은 「жат은방아타령」 1개의 연, 「경복궁타령」 1개의 연으로 그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어서쫓고 잠이나자자 입자없이 자는잠은 새우잠만 잔다/  
에라디여 에헤요 에이여라 방아홍아로다

— 경기민요 「жат은방아타령」<sup>12)</sup>

경복궁역사(役事)가 언제나 끝나 그리던가속을 만나볼까 /  
에에헤이야 얼렷렷거리고 방아로다

— 경기민요 「경복궁타령」<sup>13)</sup>

「경복궁타령」은 노랫말 중에 있는 “우광공광 소리가 웬 소리냐, 경복궁 짓는 데 회(灰)방아 찧는 소리다...”라는 구절로 보아 1865년(고종 2) 大院君이 경복궁을 중수할 때 회방아를 찧으면서 부른 노동요로 추정되나 지은이·연대 미상이다. 이후 독자적인 선소리[立唱]의 하나로 불리게 되었다. 위 노랫말은 「경복궁타령」 전체 노랫말 가운데 노동과 관련된 것이다. 경복궁 역사로 家族과 이별하게 된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노동은 있으나 방아 찧기와는 관련이 없다. 「жат은방아타령」에서는 어서 쫓고 잠을 자자고 하고 입자 없이 자는 잠은 새우잠만 잔다고 한다. 방아 찧기의 노동에서 벗어나 휴식을 바라는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잠에 대한 꼬리따기식의 말놀이가 이어져 가벼운 웃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방아 찧을 때 부른 「방아노래」에는 화자가 방아 찧기를 마

11) 권오경 교수는 판소리에 삽입된 「방아노래」는 유희요에 가깝다고 하였다. 본고의 견해와 같다. 권오경, 앞의 논문.

12) 이창배, 『한국가창대계』, 흥인문화사, 1976, 799면. 빗금(/)은 필자가 한 것으로 이하 같다.

13) 이창배, 앞의 책, 807면.

치고 밤에 마실을 가고 싶다고 한 노랫말이 있다. 이것을 보아 통속민요 가운데 「жат은방아타령」의 1개의 연이 방아 짙을 때 부른 「방아노래」에 가깝다. 그런데 「жат은방아타령」에서는 1개의 연에서만 노동과 관련된 노랫말이 있을 뿐 전반적인 내용은 노동과 관련이 없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통속민요 「방아노래」가 「상저가」에 수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에서 논맬 때 부른 「방아노래」는 농사를 소재로 한 일반적인 교훈이라는 점에서 방아 짙기를 소재로 한 「상저가」의 근원이 되는 민요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통속민요 「방아노래」는 그 내용이 노동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상저가」와 거리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방아 짙을 때 부른 「방아노래」를 대비의 대상으로 한다.<sup>14)</sup>

자료집은 현장의 상황이 충실하게 반영된 『한국구비문학대계』<sup>15)</sup>·『한국민요대전』<sup>16)</sup>·『디지탈향토문화대전』<sup>17)</sup> 등과 이른 시기에 편찬된 『諺文 朝鮮口傳民謠集』<sup>18)</sup>, 『朝鮮民謠選』<sup>19)</sup>, 『朝鮮民謠集成』<sup>20)</sup>, 『朝鮮民謠研究』<sup>21)</sup> 등이다. 『구비대계』에 수록된 「방아노래」에는 「방아노래」·「디딜방아노래」·「물방아노래」·「연자방아노래」 등이 있다. 물방아와 연자방아는 인간의 힘을 빌지 않는 것으로 그 노랫말에는 창자의 방아 짙기에서 생긴 생각과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sup>22)</sup> 「물방아노래」와 「연자방아노래」를 제외하고 「방아노래」와 「디딜방아노래」만을 대상 자료로 한다.

14) 이하 방아 짙을 때 부른 「방아노래」는 「방아노래」로 칭한다.

15)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1980~1986. 이 책은 이하 「구비대계」로 약칭한다.

16) 『한국민요대전』, 문화방송국, 1994~1995. 이 책은 이하 「민요대전」으로 약칭한다.

17) 시·군·구별로 「디지탈향토문화대전」을 통합·구축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이트(www.grandculture.net)이다. 이 자료집은 이하 「문화대전」으로 약칭한다.

18) 김소운, 『諺文 朝鮮口傳民謠集』, 제일서방, 1932. 이 책은 이하 「구전민요」로 약칭한다.

19) 임화 편·이재욱 해제, 『朝鮮民謠選』, 학예사, 1940. 이 책은 이하 「조선민요」로 약칭한다.

20) 김사엽·최상수·방중현 공편, 『朝鮮民謠集成』, 정음사, 1948. 이 책은 이하 「민요집성」으로 약칭한다.

21) 고정옥, 『朝鮮民謠研究』, 수선사, 1949, pp. 139~143. 이 책은 이하 「민요연구」로 약칭한다.

22) 다음은 「물방아노래」이다. “방아방아 물방아야 쿵쿵쾅쾅 물방아야 / 너의힘이 장하구나 / 폭포같이 쏟아져서 떨어지는 공이소리 / 한섬두섬 찌여내니 백옥(옥)같은 흰쌀이네”(『구비대계』 4-5 충남 부여 은산5 「방아타령」, 377면) 물이 폭포같이 쏟아지고 그 물로 인해 공이가 힘차게 떨어져 백옥 같은 흰 쌀이 질로 쏟아진다. 물방아를 짙는 모습의 묘사이며 물방아에 대한 찬양으로 창자의 생각과 느낌은 약화되어 있다. 창자는 이 노래를 어렸을 때 야학당에 다니던 아이들이 자주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비기능요로 불렸을 가능성도 크다.

본고에서 다룰 대상 자료의 각편 수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집	각편 수
『구비대계』	33각편 <sup>23)</sup>
『민요대전』	8각편 <sup>24)</sup>
『문화대전』	4각편 <sup>25)</sup>
『구전민요』	3각편 <sup>26)</sup>
『조선민요』	1각편 <sup>27)</sup>
『민요집성』	1각편 <sup>28)</sup>
『민요연구』	1각편 <sup>29)</sup>
총 각편 수	51각편

- 23) 『구비대계』에 수록된 「방아노래」·「디딜방아노래」는 총 35각편이다. 35각편 가운데 7-7 경북 영덕 강구41 「방아타령」, 671면은 심청가의 삽입가요 「방아타령」과 관련된 것이고, 7-9 경북 안동 서후23 「방아 노래」, 617면은 제보자가 방아를 켜면서 부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2각편을 제외한 33각편이 본고의 대상 자료이다. 33각편은 다음과 같다. 1-2 경기 여주 북내12 「방아타령(1)」, 281면, 1-2 경기 여주 북내13 「방아타령(2)」, 282면, 1-4 경기 의정부 가늉3 「방아쟁기노래」, 203면, 3-1 충북 증원 상모12 「디딜방아노래」, 253면, 3-4 충북 영동 용산3 「디딜방아노래」, 357면, 5-1 전북 남원 이백2 「방아노래」, 245면, 5-2 전북 완주 동상23 「방아노래」, 686면, 5-4 전북 옥구 임피12 「방아타령」, 938면, 5-5 전북 정읍 감곡14 「방아타령」, 676면, 6-2 전남 함평 나산10 「방아쟁는노래」, 546면, 6-2 전남 함평 월야6 「방아타령(디딜방아타령)」, 652면, 6-3 전남 고흥 도양19 「방아타령」, 157면, 6-10 전남 화순 도곡50 「방아타령」, 401면, 7-2 경북 월성 외동7 「방아타령」, 434면, 7-2 경북 월성 외동13 「방아타령」, 445면, 7-4 경북 성주 대가92 「방아타령」, 365면, 7-4 경북 성주 대가93 「방아타령」, 366면, 7-4 경북 성주 대가138 「방아노래」, 417면, 7-5 경북 성주 월항13 「방아노래」, 83면, 7-5 경북 성주 월항45 「방아노래」, 110면, 7-5 경북 성주 초전25 「방아노래」, 220면, 7-12 경북 군위 고로2 「방아쟁기노래」, 762면, 7-15 경북 선산 선산3 「방아소리」, 422면, 8-1 경남 거제 장승포 17 「방아노래」, 475면, 8-2 경남 거제 사등34 「방아노래」, 96면, 8-4 경남 진양 대곡8 「방아노래」, 184면, 8-4 경남 진양 명석14 「방아노래」, 751면, 8-6 경남 거창 북상4 「방아쟁기노래」, 230면, 8-6 경남 거창 북상59 「방아노래」, 278면, 8-10 경남 의령 의령17 「방아노래(1)」, 279면, 8-10 경남 의령 의령26 「방아타령」, 291면, 8-10 경남 의령 의령30 「방아노래(2)」, 297면.
- 24) 『민요대전』에 수록된 「방아노래」는 12각편이다. 12각편 가운데 충남 CD 2-15 금산 「주장맥이 주장 방아 켜는 소리」는 주당살이 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부른 것이고, 전남 CD 14-28 장흥 「방아타령」의 제보자는 실제로 방아를 켜며 불렀던 기억은 없다고 하였고, 경북 CD 8-25 영덕 「방아타령」은 심청가의 삽입가요이고, 경남 CD 4-9 삼천포 「갈방아쟁는소리」는 짧은 소나무 꺾절인 갈을 켜면서 부른 노래이다. 4각편을 제외한 8각편이 대상 자료이다. 8각편은 다음과 같다. 충북 CD 3-25 음성 「디딜방아 켜는소리」, 전북 CD 2-27 무주 「아리랑-문경새재 박달나무 / 영감아 꽃감아」(디딜방아를 켜면서 부르기도 하고 강원도에서는 「모심는소리」), 전북 CD 8-8 익산 「벼방아 켜는소리-매갱이질소리」, 전남 CD 10-9 여천 「방아쟁는 소리」, 전남 CD 17-12 함평 「방아쟁는 소리」, 경북 CD 2-5 달성 「방아 켜는 소리」, 경북 CD 5-3 김천 「방아쟁는소리」, 경남 CD 7-9 통영 「방아타령」.
- 25) 『구로문화대전』 경기 시흥 「방아타령」, 『칠곡문화대전』 경북 칠곡 「방아타령」·경북 칠곡 「디딜방아노래」, 『진주문화대전』 경남 진주 「방아노래」.
- 26) 충남 대전 #253 73면, 경남 함안 #1101 302면, 황해 信川 #1542 399면. #은 『구전민요』에

제2장에서는 「상저가」 해석에서의 쟁점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상저가」와 「방아노래」를 대비하여 「상저가」의 정체를 살펴본다.

## 2. 「상저가」 해석의 쟁점

「상저가」의 원문과 현대어역은 다음과 같다.

원문

듣기등 방해나 디해 히애  
게우즌 바비나 지서 히애  
아버님 어마님의 받잡고 히야해  
남거시든 내머고리 히야해 히야해

현대어역

덜커덩 방아나 쪼어 / 히애  
게긋은 밥이나 지어 / 히애  
아버님 어머님께 바치고 / 히야해  
남거든<sup>30)</sup> 내 먹으리 / 히야해 히야해

「상저가」의 “히애, 히야해”에 대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감탄적인 소리라는 견해<sup>31)</sup>와 받는 소리라는 견해<sup>32)</sup>가 있다. 감탄적인 소리에 대한 부가 설명이

---

있는 작품 번호로 이하 같다.

- 27) 황해 한포 「방아타령」 162면.
- 28) 경남 거창 「거창 방아노래」 205면.
- 29) 경북 칠곡 「방아쪼기노래」 139-143면.
- 30) ‘남거시든’에서 ‘-시’가 비존칭으로 사용되면 ‘남거든’의 뜻이고, 존칭으로 사용되면 ‘남기시거든’의 뜻으로 어느 쪽의 해석이든 가능하다. ‘남거든’일 경우 먼저 부모님께 바치고 남은 음식을 화자가 먹겠다는 뜻이고, ‘남기시거든’일 경우 부모님께 바치고 부모님께서 음식을 남기시면 화자가 먹겠다는 뜻이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란 의미에서 전자의 뜻이 문맥상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남거시든’의 어학적 해석은 박병채, 『고려가요의 어석연구』, 이우출판사, 1980, 352면 참조.
- 31) 이병기 선생은 감탄의 여음이라고 하였고, 박병채 선생은 숨을 돌리기 위해 지르는 감탄적 조율음이라고 하였다. 이병기, 앞의 논문, 33면; 박병채, 앞의 책, 352면.

없어 창자가 메기는 소리를 한 다음 이어 감탄의 소리를 한 것인지 창자가 메기는 소리를 하고 다른 창자들이 감탄의 소리를 한 것인지 불명확하다. 현 채록 『방아노래』에서 창자들은 『방아노래』를 독창으로 불렀다고 제보한 경우보다 선후창으로 불렀다고 제보한 경우가 많다.<sup>33)</sup> 이러한 사실로 보아 “히에, 히야해”는 받는 소리이고 『상저가』는 선후창의 노래로 보인다. 그런데 현 채록 『방아노래』에서 받는 소리가 “히에, 히야해”와 같은 모음계열로만 된 것<sup>34)</sup> 보다는 ‘모음계열의 어구+방아’로 된 것<sup>35)</sup> · ‘모음계열의 어구+잘 한다’로 된 것<sup>36)</sup> · 유의미한 노랫말<sup>37)</sup>로 된 것이 많다. 이것을 보아 『상저가』는 『방아노래』가 수용되면서 받는 소리가 변개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방해나”와 “바비나”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다.

- 
- 32) 성호경 교수는 ‘히에는 받는 소리로 조흥만이 아니라 4음보 율격을 구성하는 조율소 구실도 한다고 하였고, 김완진 선생은 ‘히에는 가장 상 노랫말의 끝이 변음된 결과로 받는 소리의 기만이 되었다고 하였고, 조동일 선생은 ‘히에는 받는소리로 『상저가』는 절구방아를 돌이서 짚으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였다. 성호경, 앞의 논문, 277면; 김완진, 『고려가요 해석의 반성』,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225~233면; 조동일, 앞의 책, 140~141면.
- 33) 노랫말에 대한 부대 설명이 있는 경우 독창으로 불렀다는 설명이 있는 경우는 드물고 선후창으로 불렀다는 설명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후창으로 불렀다는 설명이 있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받는 소리 “에헤야” 메갱이(떡메)로 절구방아를 짚을 때 부르는 소리(『민요대전』 전북 CD 8-8 익산 『벼방아 짚는소리-메갱이질소리』), 받는 소리 “에야 에야루 방에야” 절구 방아를 짚을 때 부르는 소리(『민요대전』 전남 CD 10-9 여천 『방아짚는 소리』), 받는 소리 “에이야디아 방에야 에이야 디야 방에야” 디딜방아를 짚을 때 부르는 소리로 방아를 짚는 사람은 받는 소리를 하고 화에 곡식을 쓸어 넣는 사람은 메기는 소리를 함(『구비대계』 7-2 월성군 외동면 『방아타령』, 445면), 받는 소리 “헤헤요 헤헤요 헤헤웅하라 방에로구나” 디딜방아를 짚을 때 부르는 소리(『구비대계』 6-2 함평군 월야면 『방아타령(디딜방아타령)』, 652면), 받는 소리 “호호호 호이야사이 잘 한다” 디딜방아를 짚으며 부르는 소리(『민요대전』 경북 CD 5-3 김천 『방아짚는소리』).
- 34) “에헤야”(『민요대전』 전북 CD·8-8 익산 『벼방아 짚는소리-메갱이질소리』).
- 35) “에이덜경 방에야”(『구전민요』 황해도 信川 『방아 一篇』 #1542 399면), “어허야 어허야 어허 옥이라 방아로구나/ 나지나지나지 방아로구나”(『민요집성』 경남 거창지방 『거창 방아노래』, 205면), “헤헤요 헤헤요 헤헤웅하라 방에로구나”(『구비대계』 6-2 652면 함평군 월야면 『방아타령(디딜방아타령)』, “에헤마호 에헤 방아로세”(『구비대계』 6-10 전남 화순군 도곡면 50 『방아타령』, 401면), “에이야디아 방에야 에이야 디야 방에야”(7-2 월성군 외동면 『방아타령』, 445면), “어러릴리 방아야”(8-4 경남 진양군 명석면 『방아 노래』, 751면), “에야 에야루 방에야”(『민요대전』 전남 CD 10-9 여천 『방아짚는 소리』), “어러릴리 방아야”(『진주문화대전』 경남 진주 『방아노래』), “오호 방헤야”(『칠곡문화대전』 경북 칠곡 『방아타령』).
- 36) “호호호 호이야사이 잘 한다”(『민요대전』 경북 CD 5-3 김천 『방아짚는소리』)
- 37) “얼커덩 텨커덩 짚는 방에 언제나 다 짚고 마실까요”(『민요대전』 경북 CD 2-5 달성 『방아짚는 소리』).

화자가 방아와 거친 밥이라도 만족하는 현실에 대한 “수분과 지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해석<sup>38)</sup>과 화자가 한정된 자유에 대한 “체념과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해석<sup>39)</sup>이 있다. 어느 해석이 타당한가?

‘-나’는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어느 일부만이 선택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특수조사이다. 이 특수조사에 대하여 국어학계에서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란 용례와 같이 행동의 주체가 처음부터 원한 것은 아니었으나 어쩔 수 없이 선택한다는 뜻의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sup>40)</sup>, ‘오늘은 술이나 마시자’란 용례와 같이 행동의 주체가 주어진 상황 하에서 최선에 버금가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뜻의 자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41)</sup> 두 견해를 절충하여 화자의 의지에 의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하여 선택될 경우에만 불만을 나타낸다고 보기도 한다.<sup>42)</sup>

이러한 견해를 참조하면 『상저가』에서 ‘방해나’와 ‘바비나’는 서로 분리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방해나’의 앞에는 ‘덜커덩’이라는 의성어가 있으며 이 의성어는 방아 찼을 소리로 방아 찼을 때의 흥겨운 분위기를 나타낸다. 이에 비하여 ‘바비나’의 앞에는 ‘게우즌’이란 수식어가 있으며 거칠고 까칠까칠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곧 ‘방해나’에서 화자는 방아라도 찼게 된 것에 대하여 자족함에 비하여 ‘바비나’에서 화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거친 밥밖에 없다는 불만을 담고 있다. 종합하면 화자는 방아를 찼어 밥을 짓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친 밥밖에 없다는 뜻이다. 현 상황에 대한 불만으

38) 김갑기 선생은 ‘-나’는 한정된 자유이기보다는 현실의 수용이라는 수분과 지족의 사상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조해숙 교수는 ‘밥이나’에서 ‘-나’는 동양적 생활철학, 곧 수분과 지족의 천명사상과 함께 내일로의 확신을 갈구하는 위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김갑기, 앞의 논문, 11면; 조해숙, 앞의 논문, 223면.

39) 김동욱 선생은 ‘듣기둥 방애나’ ‘게우즌 바비나’ 등에 어리어 있는 限定된 自由에 대한 肯定은 一種의 諦觀이라고 하였고, 조동일 선생은 노동한 성과의 분배가 잘못되었다는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동욱, 앞의 책, 192-193면; 조동일, 앞의 책, 140~141면).

40) 이승명, 『-나의 의미 기능』, 『수련어문학』10, 부산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수련어문학회, 1983, 74-76면; 나은영, 『현대국어 이계열 특수조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2002, 53~56면.

41) 한정환, 『특수조사 마저, 조차, 라도, 나의 계량적 의미』, 『국문학논총』20,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5, 8면; 이익섭, 『한국어문법』, 서울대 출판부, 2013, 159면; 김준기, 『특수조사 나에 대하여』, 『어문학』105, 한국어문학회, 2009, 27~40면.

42) 류병률, 『한국어 조사 ‘-이나’의 의미와 쓰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3, 3~10면.

로 귀결된다. 이어 화자는 그 밥을 어머니와 아버님께 바치고 남으면 자신이 먹겠다고 한다. 현 상황을 수용한 만족이다. 결국 「상저가」에는 불만(제1-2행)과 만족(제3-4행)이 복합되어 있으며 불만에서 만족으로 계기적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특징이 「방아노래」에서 확인되는가? 「방아노래」와의 대비로 이 점을 살펴보자.

### 3. 「방아노래」와의 대비와 「상저가」의 정체

#### 3.1. 「방아노래」와의 대비

전술한 자료집에서 「방아노래」 51각편을 확인하였다. 이 51각편에는 노동을 지시하거나 독려하는 실무기능을 하는 노랫말, 화자의 생각과 감정을 표출하는 표출기능을 하는 노랫말, 노동의 고됨을 풀어주는 놀이기능을 하는 노랫말 등이 있다.<sup>43)</sup>

이 가운데 실무기능을 하는 노랫말만으로 각편이 이루어진 것, 놀이기능을 하는 노랫말만으로 각편이 이루어진 것이 있다. 전자의 예는 “산이루 올라서 산신방아 들루 내려서 디딜방아 예주 이천 자채방아 경신월 경신시 강태궁에 조작방아 사시장천 걸어놓고 떨어덜떨어덜 떨어보세”<sup>44)</sup>이다. 방아 이름을 나열한 다음 독려한 것으로 화자의 생각과 감정을 찾기는 어렵다. 후자의 예는 “산이루 올라서 산신방아 들루 내려서 디딜방아 예주 이천 자채방아 경신월 경신시 강태궁에 조작방아”이다. 방아 이름을 나열한 것으로 화자의 생각과 감정을 찾기는 어렵다. ‘방아 이름의 나열+독려’로 된 것과 ‘방아 이름의 나열’로 된 것이 8각편<sup>45)</sup>이다. 8각편을 뺀 43각편으로 「방아노래」에 나타난 화자

43) 강등학 교수는 노동요에는 실무기능, 표출기능, 놀이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강등학, 『한국민요의 현상과 장르론적 관심』, 집문당, 1996, 11~33면.

44) 『구비대계』 1-2 경기 여주 북내13 「방아타령(2)」, 282면.

45) 『구비대계』 1-2 경기 여주 북내12 「방아타령(1)」, 281면, 1-2 경기 여주 북내13 「방아타령(2)」, 282면, 6-3 전남 고흥 도양19 「방아 타령」, 157면, 8-2 경남 거제 사동34 「방아노래」, 96면, 『민요대전』 충북 CD 3-25 음성 「디딜방아 짙는소리」, 전북 CD 8-8 익산 「벼방아 짙는소리」, 전남 CD 17-12 함평 「방아짙는 소리」, 『조선민요』 황해 한포 「방아타령」, 162면.

의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화자의 생각과 감정에는 화자가 자신의 상황에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다.<sup>46)</sup>

다음은 만족이 표출된 노랫말이다.

(가1) 방아방아 방아로다/ 이방아가 누방아고/ 강태공의 조작방아/ 방아방아 방아로다/ 방아로 찍어서/ 뒷집의 김대룡은 찰쌀범벅/ 앞집의 이대룡은 맷쌀범벅/ 범벅범벅으 범벅노래를 불러보자/ 풍년이 왔구나<sup>47)</sup>

(가2) 방아짙는 자작들아/ 싹이나알고 방아를짙나/ 흔차짙는 외가래방아/ 돌이 짙는 가래방아/ 남산습내 물레방아/ 물을안고서 빙빙돌고/ 머리 좋고 키큰치너는/ 나를안고서 빙빙돈다<sup>48)</sup>

(가3) 산에올라 참나무방아야/ 어러릴리 방아야 (이하 받는 소리 생략)/ 기목나무 못을박아/ 찰쌀방아 물리놓고/ 딸오기로 기다린다/ 보리방아 물리놓고/ 며느리오기를 기다린다/ 앵두주지 꺾어놓고/ 해신이오기를 기다린다/ 망금주지 꺾어놓고/ 청성을두기 기다린다/ 건너아가 어서가자/ 입은애기 바실인다<sup>49)</sup>

(가1)에서 화자는 방아를 짙어 뒷집의 김도령에게 찰쌀범벅을 만들어주고 앞집의 이도령에게는 맷쌀범벅을 만들어주자고 하며 풍년이 왔다고 한다. 현재 풍년이 이루어졌으니 방아를 짙고 음식을 장만하여 풍년을 즐기자는 것이다.<sup>50)</sup> 풍년이 이루어진 현실에 대한 기쁨일 수도 있고, 풍년의 상황을 미리

46) 만족·불만은 화자의 정서가 아니라 감정이다. 정서란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욕구와 욕구가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 사이의 모순에서 생긴 감정들을 조화시키는 과정으로 화자의 감정과는 차이가 있다. 정서심리학에서는 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positive emotion)와 부정적인 정서(negative emotion)로 나누고 긍정적인 정서에는 기쁨·행복·희망 등이 있고 부정적인 정서에는 불안( 공포)·분노(공격)·슬픔 등이 있다고 한다. 본고에서 만족은 기쁨·행복·희망 등이고, 불만은 불안(공포)·분노(공격)·슬픔 등이다. 만족·불만은 화자가 모순되는 감정을 조화시키는 과정을 담은 것이 아니라 화자의 현 상황에 대한 감정이 중심이다. 정서에 대한 것은 김대행, 『情緒의 本質과 構造』, 『고려시가의 정서』, 개문사, 1990, 7~30면 참조. 긍정적 정서·부정적 정서에 대한 것은 Robert Plutchik, 박권생 역, 『정서심리학』, 학지사, 2004, 1~550면; James W. Kalat, Michelle N. Shiota, 민경환·이옥경·김지현·김민희·김수안 옮김, 『정서심리학(Emotion)』, 시스마프레스, 2007, 1~463면 참조.

47) 『구비대계』 7-2 경북 월성 외동7 『방아타령』 434면.

48) 『구비대계』 7-4 경북 성주 대가93 『방아타령』 366면.

49) 『구비대계』 8-4 경남 진양 명석14 『방아노래』 751면.

말하여 풍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보든 풍요에 대한 기쁨이 담겨 있다. 이러한 풍요에 대한 기쁨이 담긴 노랫말에는 商賈船이 순풍에 돛을 달고 지나가는 것처럼<sup>51)</sup> 평화로운 현실이 나타나거나 이천석의 방아를 찧고 삼천석의 방아 찧는다는 것처럼<sup>52)</sup> 풍요로운 현실이 나타난다. (가2)에서 화자는 물레방아가 물을 안고 돌듯이 머리 좋고 키 큰 처녀가 자신을 안고 돈다고 한다. 총각이 처녀와 결합한 기쁨을 표출한 것일 수도 있고, 총각이 처녀와의 결합을 미리 말하여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보든 총각과 처녀의 결합에 대한 기쁨이 있다. 풍요에 대한 기쁨·청춘남녀의 결합에 대한 기쁨 등은 「모심는소리」·「논매는소리」 등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다.<sup>53)</sup> (가3)이 주목된다.

(가3)에서 화자는 찹쌀방아를 찧어 쌀 오기를 기다리고, 보리방아를 찧으며 느리오기를 기다린다. 화자는 방아를 찧는 정성으로 떠났던 며느리와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 기다림은 희망이 있는 것으로 현 상황에 대한 만족을 표출한 것이다. 그런데 만족만으로 작품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불만을 드러내기도 한다. 딸과 며느리에 차이를 둔 것이 그것이다. 딸은 좋은 찹쌀로 방아를 찧어 기다리고, 며느리는 나쁜 보리쌀로 방아를 찧어 기다린다.<sup>54)</sup> 화

50) 다음의 노랫말도 같은 예이다. “영감아홍감아 개떡을떡개/ 방아품팔아서 개떡을했네/ 봄보리개떡은 본낭군주고/ 갈보리개떡은 훗낭군주자”(『구비대계』 3-1 층북 중원 상모12 「디딜방아노래」 253면). “이방애가 뉘방앤고 강태공의 조조작방애야/ 에헤마호 에헤 방아로세(이하 받는 소리 생략) / 찰떡치고 목떡치고 연기잡아서 옷집을었어”(『구비대계』 6-10 전남 화순 도곡50 「방아타령」 401면).

51) “에헤에 아-야/ 어랑 어요라 방아로구나/ 일러간 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동녀에 저기 저 달이/ 에헤라 좋구나/ 노제어도 넓은 물에/ 오고 가는 상고선은/ 순풍에 돛을 달고/ 북을 두리둥실 울리면서/ 어어여차 닷 감는 소리/ 어허라 아리아리라”(『구로문화대전』 경기 시흥 「방아타령」).

52) “이방애가 뉘방애나/ 이방애가 뉘방앤고/ 강태공의 조작방애/ 강태공의 조작방애면/ 이름이나 아니있나/ 이방애를 찧어/ 삼천석을 누르며/ 이천석을 누를거나/ 이방애를 찧어/ 방애방애 연자방애/ 방애방애 물레방애/...”(『구비대계』 5-5 전북 정읍 감곡14 「방아타령」 676면). “꼭꼭 밟아라 내려가면 쌀나온다 발사이엔 불난다 까불면 땀기 날아가니 쌀이난다 호박에 쌀나고 방앗간에 불난다”(『칠곡문화대전』 경북 칠곡 「디딜방아 노래」).

53) 「모심는소리」·「논매는소리」에 풍요에 대한 기쁨·청춘남녀의 결합에 대한 기쁨 등의 내용이 있음은 좋고, 「영호남 지역 <논매는소리>에 나타난 愛情의 양상과 의미」, 『한국시가연구』 30집, 한국시가학회, 2011, 225~256면; 좋고, 「영남 지역 <모심는소리>의 愛情 노랫말에 나타난 情緒와 그 의미」, 『한국민요학』 31집, 한국민요학회, 2011, 235~264면 참조.

54) 딸의 자식과 며느리의 자식을 구별하는 경우도 있다. 딸의 손자에게는 대두로 만든 고물을 문헌 떡·참살구를 준비하여 기다리고 만난 다음에는 등에 업고 함께 다니고, 며느리의 손자

자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떠났던 딸을 만난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떠났던 며느리를 다시 만난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동시에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며느리에 대한 불만도 있다. 며느리에 대한 만족과 불만이 복합되어 있다. 이것은 화자가 어머니이면서 시어머니라는 이중적 위치에 기인한다.

다음은 불만이 표출된 노랫말이다.

(나1) 방아방아 찧는방아 쿵덕쿵덕 찧난방아 / 언제나 다췌코 밤마실 갈가나<sup>55)</sup>

(나2) 쿵닥쿵닥 찧는방애/ 이방아찧고 내어하니/ 이방애로 찧어내어/ 저어갔다 바칠건꼬 / 골병들어가미 방아찧어/ 이방아찧어 목고사니/ 이런서월 오덧더노/ 더럽고도 더런복을징값구나<sup>56)</sup>

(나3) 한섬두섬 찧여내니 백옥같은 흰쌀을 독독이 채워노니 웃음이 절로난다 / 그러구려 찧모두어 흰쌀에 뉘가있네 / 시어머님 하신말씀 야야조금 더췌지 들췌어서 뉘가있다 / 며느리 도리로써 그췌퍼서 방애에다 췌으면서 / 시어머니 아니면 이고생이 왜되려나 / 내가가려 해먹어도 될것을 걱정을 면하려고 / 뉘쌀을 절구에다 또실으니 / 한번디야 백미되고 한번디야 청미되어 / 파란쌀이 희게되면 시어머니 웃음난다 / 얼씨구종타 절씨구 있는힘을 다해서 절구방애를 찧였건만 / 시아버님 밥상에 돌들어가면 / 걱정에 호동방구가 돌아오니 얼마나 웃을건가 / 훗떨랑은 밥할적에 돌도뉘도 없기로 조심조심 하여보자 / 췌아리를 뜯어다가 시아버님 밥상에 췌부려놓고 / 영경귀를 뜯어다가 시어머니 밥상에 영겁을 췌워놓고 / 만반진수를 정성드려 부모님을 섬기고보면 / 그것이 내게돌아와 만고대복을 배받으리<sup>57)</sup>

---

에게는 고물이 없는 밀가루 떡·개살구를 준비하여 기다리고 만난 다음에도 견게 하여 함께 다닌다는 것이 그것이다. “방아헐헐 사방아여 서울올나 뇌릴방아 방아내로 가자시라 / 뽀비고물 외상떡은 안섬반에 언저눅코 쌀의손자 기다리네/ 밀개떡은 췌가지고 것섬반에 언저눅코 메느리손자 기다리네/ 참살구라 췌근추지 안섬반에 언저눅코 쌀의손자 기다리네/ 개살구라 췌근추지 것섬반에 언저눅코 메느리손자 기다리네/ 두자두치 눈오들에 쌀의손자 업고가고 메느리손자 걸니고가네/ 것논아가 어서가자 업은애기 발시리다/ 난대업은 술갱이가 업은애기 탁차갓다/ 것논애기 들주우마 업은애기 하나도라/ 것논애기 셋주우마 업은애기 하나도라/ 혈혈헐러 사방아야”(『구전민요집』 경남 함안 #1101 302면).

55) 『구전민요』 충남 대전 #253 73면.

56) 『구비대계』 8-10 경남 의령 의령26 『방아 타령』 291면.

57) 『구비대계』 3-4 충북 영동 용산3 『디딜방아노래』 357면.

(나1)에서 화자는 방아 쪼기가 많아서 밤마실을 갈 수 없다고 한다. 시집에서의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불만이다. 마실이란 여인이 마을의 동무들에게 놀러가는 것이다. 놀러간다는 것은 노동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자유와 육체적인 휴식을 가지고 싶다는 욕구를 의미하고, 방아 쪼기가 많다는 것은 그 욕구를 좌절시킨 현실을 의미한다. ‘난질가는 것’<sup>58)</sup> ‘태산구경 가는 것’<sup>59)</sup> ‘시집오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sup>60)</sup> ‘장마중가는 것’<sup>61)</sup> ‘잠을 자는 것’<sup>62)</sup> 등은 화자의 욕구를 강조하여 불만을 표출한 것이고 ‘하루 종일 쪼어도 피 한 되도 못 쪼었다’고 한 것<sup>63)</sup>, ‘방아 쪼기뿐만 아니라 밭매기 배 짜기 등을 해야 한다’고 한 것<sup>64)</sup>, ‘방아를 쪼고 설거지를 해야 한다’고 한 것<sup>65)</sup> 등은 욕구를 좌절시킨 현실을 강조하여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어느 쪽이든 시집에서의 과도한 노동에 대한 불만이다. (나2)도 노동으로 인한 불만이라는 점은 (나1)과 같다. (나2)에서는 방아 쪼기만하여야 하는 신세를 한탄한다. 열심히 노동하여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사회모순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다.<sup>66)</sup> 과도한 노동에 대한 불만이나 노동만해야 하는 신세에 대한 한탄 등은 「모심는소리」·「논매는소리」·「나무꾼노래」 등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sup>67)</sup> 「방아노래」만의 특징은 아니

58) 『구비대계』 7-12 경북 군위 고로2 「방아쪼기노래」 762면.

59) 『민요연구』 경북 칠곡 「방아쪼기노래」 139~143면.

60) 『구비대계』 8-10 경남 의령 의령30 「방아 노래(1)」 279면.

61) 『구비대계』 7-5 경북 성주 월항13 「방아노래」 83면.

62) 『민요대전』 전남 CD 10-9 여천 「방아쪼는 소리」.

63) “방에야 방에야 방에야 방에야 / 이방에는 뉘방에나 강대공의 조작방에 / 에이덜경 방에야 / 하루종일 쪼여두 피한되를 못쪼네 / 에이쿵쿵 방에야”(『구전민요』 황해 信川 #1542 399면).

64) “...어나千年 다쪼어서 泰山求景 언제가며 사립땀에 자갈밭은 때방랭이 속있나니 六月炎天 불陽地에 미길이 취신발을 언제매고 살아갈고// 덧도장에 빛은술을 어느丈夫 맛을보고 이방에 쪼고 이밭매고 이비짜는 속을알꼬...”(『민요연구』 경북 칠곡 「방아쪼기노래」 139~143면).

65) “...콩다콩 콩다콩 쪼는 방에 언지나 다 쪼고 적마실 가꼬 / 호호호 호이야사이 잘 한다(이하 받는 소리 생략) / 시아바이 잠놓아 적상 받아라 얼른 뚝딱 설겅이고 적마실 간다 / 콩다콩 콩다콩 쪼는 방에 언지나 다 쪼고 적마실 가꼬”(『민요대전』 경북 CD 5-3 김천 「방아쪼는소리」).

66) 열심히 일해도 유흥가의 여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도 사회모순에 대한 불만이다. “에헤라 허랑아 타랑아 자락에는 / 시리비 장놈이자라고 / 지화자 타랑의 자락에는 / 말동시팔년이 자란다/ 에헤야 에헤야 / 어허리난다 동계두여라/ 얼커덩 덜커덩/ 쪼는방에야 소리 있네”(『구비대계』 8-6 경남 거창 북상59 「방아 노래」 278면).

67) 「모심는소리」·「논매는소리」·「나무꾼노래」에 과도한 노동에 대한 불만이나 노동만해야 하는 신세에 대한 한탄 등의 내용이 있음은 좋고, 『영호남 지역 <논매는소리>에 나타난 愛情

다. (나3)이 주목된다.

(나3)에서 화자는 시집 식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다. 화자는 방아를 찧은 쌀에 아직 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쌀이 섞여 시어머니가 더 쏘으라고 꾸짖자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게 되었다고 불만을 표출하다가 쌀을 더 쏘고 나니 시어머니의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만족한다. 또한 화자는 시아버지의 밥상을 차리다가 돌이 나오면 시아버지의 호통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며 불만을 표출하다가 시부모님의 밥할 때 돌도 누도 없도록 조심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이어 아리나물과 엉경귀나물을 정성스레 준비하여 시부모님께 바친다. 요약하면 노랫말은 ‘화자의 행위(방아 찧기와 밥하기)→시부모의 꾸짖음과 화자의 불만→시부모님에 대한 봉양의 순서로 전개된다. 시집 생활이 고생스러워도 시부모님을 정성스럽게 봉양한다는 내용이다. 고생스러운 모습이 구체화된다. 시어머니가 꾸짖는 말이 직접 인용되고 이에 대한 화자의 내면이 드러나고, 시아버지가 꾸짖는 것과 이에 대한 화자의 불안감이 드러난 것 등이 그것이다. 화자의 불만이 부각된다. 화자의 불만은 이후 시집 식구를 봉양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불만에서 만족으로 전개되는 계기적 구성이다. 이러한 계기적 구성은 “며느리 도리”로써 시어머니의 “걱정을 면”하기 위한다는 윤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시집 식구에 대한 불만과 만족이 병렬적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그 예가 “시어머니 죽으라고 / 축수를 했더니 / 보리방에 물벼논니 / 생각이 난다 / 라라라란다 등기디어라”<sup>68)</sup>이다. 화자는 과거 시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시어머니가 그리울 정도이다. 불만과 만족이 병렬되어 있다. 불만과 만족이 복합된 이유는 화자가 며느리이면서 시어머니라는 이중적인 위치 때문이다. 화자는 며느리입장에서는 시집 식구에 대하여 불만이었지만 시어머니입장이 되자 시집 식구에 대하여 만족하게 된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방

---

의 양상과 의미, 『한국시가연구』 30집, 한국시가학회, 2011, 225-256면; 줄고, 『영남 지역 <모심는소리>의 愛情 노랫말에 나타난 情緒와 그 의미, 『한국민요학』 31집, 한국민요학회, 2011, 235-264면; 줄고, 『영남 지역 <나무꾼노래>에 나타난 신세탄식의 양상과 의미, 『한국민요학』 29집, 한국민요학회, 2010, 405-436면 참조.

68) 『구비대계』 7-5 경북 성주 월향45 『방아노래』 110면. 이것과 같은 노랫말은 “콩다콩콩다콩 찧는방아 / 언제나다 찧고 마실까가 / 시어머니 죽으라고 / 축수를 했는데 / 보리방에 물벼논으니 / 생각난다”(5-4 전북 옥구 임피12 『방아타령』 938면)이다.

아노래』에서 화자는 시집 식구에 대하여 불만과 만족이 복합되어 있다. 불만과 만족이 복합된 것은 화자의 이중적인 위치 때문이다. 노랫말은 병렬적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윤리가 개입되어 계기적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이상 『방아노래』에 나타난 내용을 화자의 현 상황에 대한 만족과 불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만족이 표출된 것에는 풍요에 대한 기쁨, 총각과 처녀의 결합에 대한 기쁨, 며느리에 대한 만족과 불만의 복합 등이 있다. 불만이 표출된 것에는 과도한 노동에 대한 불만, 노동만 하는 신세에 대한 한탄, 시집 식구에 대한 불만과 만족의 복합 등이 있다. 각 내용에 따른 각편 수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각편 수
만족 (총 15각편)	풍요에 대한 바람	6각편 <sup>69)</sup>
	총각과 처녀의 결합	2각편 <sup>70)</sup>
	며느리에 대한 만족과 불만	7각편 <sup>71)</sup>
불만 (총 28각편)	과다한 노동에 대한 불만	21각편
	노동만 하는 신세에 대한 한탄	3각편 <sup>72)</sup>
	시집 식구에 대한 불만과 만족	4각편 <sup>73)</sup>

위의 표에서 풍요로 인한 만족, 총각과 처녀의 결합으로 인한 만족,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불만, 노동만 하는 신세로 인한 불만 등은 『방아노래』 뿐만 아니라 노동요에 두루 보이는 내용이다. 따라서 『방아노래』의 특징은 며느리에

69) 『구비대계』 3-1 충북 중원 상모12 『디딜방아노래』, 253면, 5-5 전북 정읍 감곡14 『방아타령』, 676면, 6-10 전남 화순 도곡50 『방아타령』, 401면, 7-2 경북 월성 외동7 『방아타령』, 434면, 『구로문화대전』 경기 시흥 『방아타령』, 『칠곡문화대전』 경북 칠곡 『디딜방아 노래』.

70) 『민요집성』 경남 거창 『거창 방아노래』, 205면, 『구비대계』 7-4 경북 성주 대가93 『방아타령』, 366면.

71) 『구전민요』 경남 함안 #1101 302면, 『구비대계』 7-2 경북 월성 외동13 『방아타령』, 445면, 8-4 경남 진양 명석14 『방아 노래』, 751면, 8-10 경남 의령 의령26 『방아 노래(2)』, 297면, 『민요대전』 경북 CD 2-5 달성 『방아짚는 소리』, 『진주문화대전』 경남 진주 『방아노래』, 『칠곡문화대전』 경북 칠곡 『방아타령』.

72) 『구비대계』 7-15 경북 선산 선산3 『방아소리』, 422면, 8-6 경남 거창 북상59 『방아노래』, 278면, 8-10 경남 의령 의령26 『방아타령』, 291면.

73) 『구비대계』 1-4 경기 의정부 가능3 『방아짚기노래』, 203면, 3-4 충북 영동 용산3 『디딜방아 노래』, 357면, 5-4 전북 옥구 임피12 『방아타령』, 938면, 7-5 경북 성주 월항45 『방아노래』, 110면.

대한 만족과 불만의 복합, 시집 식구에 대한 만족과 불만의 복합이다. 만족과 불만의 상반된 심리의 복합은 화자 자신의 이중적인 위치 때문에 생긴 것이다. 만족과 불만이 병렬적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윤리가 개입되어 계기적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이상의 사실을 바탕으로 「방아노래」와 고려속요 「상저가」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자.

고려속요 「상저가」에는 화자의 불만(제1-2행)과 만족(제3-4행)이 복합되어 있으며 불만에서 만족으로 전개된다. 불만과 만족이 복합된 점이 「방아노래」와 같다. 노동요에서는 과다한 노동에 대한 불만, 노동한 후의 풍요에 대한 만족, 노동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 등이 드러나며 불만·만족 중 하나만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상저가」에 화자의 감정이 불만과 만족이 복합된 것은 「방아노래」가 바탕이 된 것<sup>74)</sup>이다.

그런데 「방아노래」에서는 시집 식구에 대한 감정임에 비하여 「상저가」에서는 그 대상이 뚜렷하지 않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상저가」의 정체에 대하여 살펴보자.

### 3.2. 「상저가」의 정체

「상저가」에서 화자의 불만은 ‘덜커덩 방아나 찼어, 게긋은 밥이나 지어’(제 1-2행)에서 표출된다. 화자는 방아를 찼어 거친 밥이나 지어야 한다. ‘거친 밥이나’라는 단어에 화자의 불만이 담겨 있으나, 그 불만의 내용이 뚜렷하지 않다. 고생스럽게 일하여도 거친 밥을 면하지 못하는 사회의 모순에 대한 것인지, 방아를 급하게 찼어 거친 밥을 지어야 하는 시집 생활의 고생에 대한 것인지 모호하다.

조동일 선생은 “노동한 성과의 분배가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하여 전자로 해석하였다.<sup>75)</sup> 이렇게 보려면 ‘고생스럽게 방아를 찼었으나

74) 방아찼기를 소재로 한 한시에서도 화자의 시집 생활에 대한 태도가 드러난 경우가 있다. 최재남 교수는 방아 찼기를 소재로 한 한시인 尹東野(1757~1827)의 「春歌」에서 화자는 친정 생활과는 다른 가난한 시집 생활에 대한 대립·시누이에 대한 대립 등이 있으면서도 그 대립이 크지 않고 대상을 포용하는 태도가 있다고 하였다. 화자의 시집 생활(시집 식구와 시집에서의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태도가 함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윤동야의 「용가」에 대한 것은 최재남, 「윤동야의 <春歌>와 며느리 형상의 해석 방향」,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5, 415~434면.

돌아오는 것은 거친 밥이다'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술하였듯이 방아를 찧은 것은 화자가 선택한 것으로 긍정적인 의미이다. 따라서 '방아를 찧어 거친 밥을 짓다'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거친 밥'에 화자의 불만이 있다. 왜 거친 밥을 지어야 하는가? 전라도 지방에서는 '계국은 밥'이 부녀자들이 정성스럽게 방아를 찧어 밥을 지을 겨를 없을 때 지은 밥이라고 한다.<sup>76)</sup> 화자의 불만은 방아를 급하게 찧어 거친 밥을 지어야 하는 것에 있다. 시집 생활의 과도한 노동에 대한 불만<sup>77)</sup>이다. 곧 『상저가』에는 시집 식구(시집 생활)에 대한 불만·만족이 복합된 감정을 지닌 『방아노래』의 화자의 잔상이 남아 있다. 『방아노래』가 수용되어 변개된 양상을 살펴보자. 『방아노래』와 『상저가』의 차이점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방아노래』

시집 식구에 대한 불만 → 시집 식구에 대한 봉양(만족)

『상저가』

과다한 노동에 대한 불만 → 부모님에 대한 봉양(만족)

『방아노래』에서 시집 식구는 시부모이다. 방아를 찧으면서 시부모의 꾸짖음으로 고생스럽다며 시집 식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다. 이어 윤리적인 도리(떠느리의 도리)를 생각하여 시집 식구에 대한 만족으로 전환한다. 이에 비하여 『상저가』에서는 노동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다가 윤리적인 도리를 생각하

75) 조동일, 앞의 책, 140~141면.

76) 박병채 선생은 전라도 지방에서는 지금도 '계국은 밥'이란 말이 사용되고 "촌가의 계국은 쌀밥이 구수하다"라는 용례가 있다고 하였다. 박병채, 앞의 책, 350면.

77) 『방아노래』에서 시집에서의 과도한 노동에 대한 불만은 전술하였듯이 21각편이 있을 정도로 보편적이고, 田家の 여인을 소재로 한 조선 후기 한시에서도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떠느리는 새벽에 일어나 방아를 찧어 들밥을 준비하고 낮에는 들밥을 나르고 농사일을 하다가 저녁에는 돌아와 방아를 찧어 저녁밥을 준비하고, 보체는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 대표적인 작품이 尹愔(1741-1826)의 『田婦』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農家年少婦 出野亦羞人 遂伴忽忽步 裸頭箇箇中 犬隨遙饑午 鷄唱獨炊晨 日暮恒先返 兒飢啼必頻”(尹愔, 『戲詠田家秋事 八首』 제2수 <田婦> 『無名子集』 제1책). 조선 후기 전가의 여인을 소재로 한 한시의 양상은 줄고, 『徐璘淳의 <田家婦>에 나타난 여성형상의 문학적 위치-田家婦를 소재로 한 한시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5, 437~459면 참조.

여 부모님에 대한 만족으로 전환한다. 곧 「방아노래」에서는 이중적 위치에 때문에 시집 식구에 대한 愛憎이 복합된 감정을 표출하는 자연적인 인간상이 드러남에 비하여 「상저가」에서는 과다한 노동을 인내하며 부모님을 봉양하는 윤리적인 인간상이 드러난다. 「상저가」는 「방아노래」를 바탕으로 두고 있으나 효라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하여 창작에 가깝게 변개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그 변개는 ①‘시집의 과다한 노동 대한 불만→시부모에 대한 봉양(만족)’이라는 양상을 거친 다음 ②‘시집의 과다한 노동 대한 불만→부모님에 대한 봉양(만족)’이라는 양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①의 양상은 (나3)에서 확인된다. (나3)은 화자의 시집 식구에 대한 불만과 만족이 계기적으로 구성된 각편이다. 화자의 불만은 방아 찧기라는 노동을 하고 있는데 시부모가 방아 찧기를 잘못하였으니 다시 하라는 꾸짖음에 있다. 과다한 노동에 대한 불만과 시부모의 꾸짖음에 대한 불만이다. 시부모의 꾸짖음은 방아 찧기라는 과다한 노동에 대한 불만을 형성하는 소재가 되기도 한다. ②의 양상은 충북 중원군 신니면(현, 충주시 신니면)에서 채록된 「방아노래」에서 확인된다.<sup>78)</sup> 이 노래는 1980년대 신니면에 사는 지남기(남, 당시 59세)라는 창작자가 새로 지은 것으로 논뿔 때 부르는 「방아소리」에 있는 구절을 사용하였다. 그 구절은 “상생미로 찢어내허 나랏님께 진상하고/ 하생미루다가 골라내서 부모봉양 하여보세”이다. 「방아노래」의 창작에 노동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仰事俯育이라는 내용의 노랫말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에서 보면 「상저가」의 정체는 시집 식구에 대한 불만과 만족이 병렬적으로 구성된 「방아노래」를 바탕으로 효를 강조하기 위하여 계기적인 구성으로 된 「방아노래」로 변개되었다가 노동요 일반의 노랫말을 차용하여 현재의 「상저가」가 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 4. 맺음말

고려속요 「相杵歌」는 「방아노래」가 수용·변개된 노래라고 한다. 「방아노

78) 『구비대계』 3-1 충북 중원군 신니면 지남기(남, 59) 「탄금대 방아타령」, 596-604면. 「탄금대 방아타령」에 대한 것은 김영진, 「탄금대 방아타령의 명칭과 변개 양상」, 『한국민요학』6집, 한국민요학회, 2010, 17면 참조.

래」의 무엇이 수용되었으며 어떻게 변개되었는가하는 점이 의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상저가」의 해석에 대한 쟁점을 확인하고 「방아노래」와의 대비로 「상저가」의 정체를 살펴보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저가」 해석의 쟁점이다.

「상저가」는 화자가 방아와 거친 밥이라도 만족하는 ‘현실에 대한 수분과 지족’을 나타내는 작품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한정된 자유에 대한 체념과 불만’을 나타내는 작품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나’라는 특수조사는 여러 가지 가운데 어느 일부뿐만이 선택될 때 사용되는 것으로 화자의 의지에 의하여 선택될 때는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외부에 의하여 주어인 선택일 때에는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며 「상저가」는 방아를 찧어 거친 밥이나 지어야 하는 불만과 부모님을 봉양하는 만족이 복합된 작품이다.

둘째, 「방아노래」와의 대비와 「상저가」의 정체이다.

「방아노래」에는 화자가 만족을 표출한 노랫말과 불만을 표출한 노랫말이 있다. 만족이 표출된 노랫말에는 풍요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이 표출된 것·청춘 남녀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이 표출된 것·머느리에 대한 만족과 불만이 복합된 것 등이 있고, 불만이 표출된 노랫말에는 시집에서의 과도한 노동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노동만 해야 하는 신세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시집 식구에 대한 불만과 만족이 복합된 것 등이 있다. 풍요·청춘 남녀의 결합·과다한 노동에 대한 불만·노동만 하는 신세에 대한 불만 등은 「모심는소리」·「논매는소리」에도 보이는 것이다. 「방아노래」의 특징은 화자의 시집 식구에 대한 불만과 만족이 복합된 점이다. 불만과 만족의 복합은 화자가 이중적인 위치 때문에 생긴 것이다. 노랫말은 병렬적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윤리가 개입되면 계기적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고려속요 「상저가」는 화자의 불만과 만족이 복합된 점은 「방아노래」와 같으나, 과도한 노동에 대한 불만이고 부모에 대한 만족이란 점이 「방아노래」와 다르다. 「상저가」의 정체는 시집 식구에 대한 불만과 만족이 병렬적으로 구성된 「방아노래」를 바탕으로 효를 강조하기 위하여 계기적으로 구성된 「방아노래」로 변개되었다가 노동요에서 효를 주제로 하는 일반적인 노랫말을 차용하여 현재의 「상저가」가 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고정옥, 『朝鮮民謠研究』, 수선사, 1949, 139~143면.  
김사엽·최상수·방종현 공편, 『朝鮮民謠集成』, 정음사, 1948.  
김소운, 『諺文 朝鮮口傳民謠集』, 제일서방, 1932.  
신재효, 강한영 교주, 『신재효 판소리사설집』, 교문사, 1984, 685~687면.  
이창배, 『한국가창대계』, 흥인문화사, 1976, 794~808면.  
임동권, 『한국민요집 1』, 집문당, 1980, 287~293면.  
임동권, 『한국민요집 2』, 집문당, 1980, 737~745면.  
임화 편·이재욱 해제, 『朝鮮民謠選』, 학예사, 1940.  
『디지털향토문화대전』(www.grandculture.net).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1980~1986.  
『한국민요대전』, 문화방송국, 1994~1995.  
尹愷, 『無名子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2. 논저

- 강등학, 『한국민요의 현장과 장르론적 관심』, 집문당, 1996, 11~33면.  
권오경, 『방아노래의 존재 및 변모양상-기능을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  
14집, 문학과 언어연구회, 1993.  
김갑기, 『相杵歌放』, 『한국어문학연구』11, 동악어문학회, 1978, 65~80면.  
김대행, 『情緒의 本質과 構造』, 『고려시가의 정서』, 개문사, 1990, 7~30면.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192면.  
김영진, 『탄금대 방아타령의 명칭과 변개 양상』, 『한국민요학』6집, 한국민요  
학회, 2010, 17면.  
김완진, 『고려가요 해석의 반성』,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225~233면.  
김준기, 『특수조사 나에 대하여』, 『어문학』 105, 한국어문학회, 2009, 27~40면.  
나은영, 『현대국어 이계열 특수조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2002, 53~56면.
- 류병률, 『한국어 조사 ‘-이나’의 의미와 쓰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3, 3~10면.
- 박병채, 『고려가요의 어석연구』, 이우출판사, 1980, 352면.
- 성무경, 『신오위장 所作 <방아타령>의 형성층위와 단잡가』, 『한국시가연구』 12, 한국시가학회, 2002, 331~360면.
- 성호경, 『유구곡과 相杵歌의 시형』, 『어문학』 52집, 한국어문학회, 1991, 271~285면.
- 이규호, 『방아노래의 문학적 수용양상에 대하여』, 『어문학』 43집, 한국어문학회, 1983, 83~105면.
- 이병기, 『시용향약보의 한 고찰』, 『고려가요연구』, 정음문화사, 1990, 25면.
- 이승명, 『-나의 의미 기능』, 『수련어문학』 10, 부산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수련어문학회, 1983, 74~76면.
- 이익섭, 『한국어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3, 159면.
- 정기호, 『고려시대 시가의 연구』, 인하대학교 출판부, 1986
- 정한기, 『徐璘淳의 <田家婦>에 나타난 여성형상의 문학적 위치-田家婦를 소재로 한 한시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5, 437~459면.
- 정한기, 『영남 지역 <나무꾼노래>에 나타난 신세탄식의 양상과 의미』, 『한국민요학』 29집, 한국민요학회, 2010, 405~436면
- 정한기, 『영호남 지역 <논매는소리>에 나타난 愛情의 양상과 의미』, 『한국시가연구』 30집, 한국시가학회, 2011, 225~256면.
- 정한기, 『영남 지역 <모심는소리>의 愛情 노랫말에 나타난 情緒와 그 의미』, 『한국민요학』 31집, 한국민요학회, 2011, 235~264면.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제4판), 지식산업사, 2006, 140~141면.
- 조혜숙, 『<相杵歌>의 의미구조 분석』,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당, 1992, 219~227면.
- 최재남, 『윤동야의 <春歌>와 며느리 형상의 해석 방향』,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5, 415~434면.
- 한정환, 『특수조사 마저, 조차, 라도, 나의 계량적 의미』, 『국문학논총』 20,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5, 8면.

Kalat, James W., Michelle N. Shiota, 민경환 · 이옥경 · 김지현 · 김민희 · 김수안 옮김, 『정서심리학(Emotion)』, 시스마프레스, 2007, 1~463면.  
Plutchik, Robert, 박권생 역, 『정서심리학』, 학지사, 2004, 1~550면.

##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고려속요 「상저가」와 「방아노래」를 대비하여 「상저가」의 정체를 살펴보는 것이다. 「상저가」의 해석에 대한 쟁점을 확인하고 「방아노래」와의 대비로 「상저가」의 정체를 살펴보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째, 「상저가」 해석의 쟁점이다. 「상저가」는 화자가 현실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는 작품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현실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작품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나’라는 특수조사의 용례를 감안하면 「상저가」는 화자의 현 상황에 대한 불만과 만족이 복합된 작품이다.

둘째, 「방아노래」와의 대비와 「상저가」의 정체이다. 「방아노래」에는 풍요의 기쁨·청춘 남녀의 결합에 대한 기쁨·머느리에 대한 만족과 불만이 복합된 것·과다한 노동에 대한 불만·노동만 해야 하는 신세에 대한 불만·시집 식구에 대한 불만과 만족이 복합된 것 등이 있다. 「방아노래」의 특징은 화자의 시집 식구에 대한 불만과 만족이 복합된 점이다. 고려속요 「상저가」는 화자의 불만과 만족이 복합된 점은 같으나, 과다한 노동에 대한 불만이고 부모에 대한 만족이란 점이 다르다. 「상저가」의 정체는 시집 식구에 대한 불만과 만족이 병렬적으로 구성된 「방아노래」를 바탕으로 효를 강조하기 위하여 계기적으로 구성된 「방아노래」로 변개되었다가 노동요에서 효를 주제로 하는 일반적인 노랫말을 차용하여 현재의 「상저가」가 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 고려속요, 민요, 「相杵歌」, 「방아노래」, 만족, 불만.

【Abstracts】

## A Study for Identity of Goryeo Sockyo 「Sangjeoga(相杵歌)」

Jeong, hangj

In this thesis, I aim at investigating the Identity of Goryeo Sockyo 「Sangjeoga(相杵歌)」 by comparing 「Sangjeoga(相杵歌)」 and 「A miller's song」. The result is as follows.

The issue in making interpretation of 「Sangjeoga(相杵歌)」 : One interpretation of 「Sangjeoga(相杵歌)」 is that the poetic narrator in 「Sangjeoga(相杵歌)」 has the negative emotion with the present situation. Other interpretation of 「Sangjeoga(相杵歌)」 is that the poetic narrator in 「Sangjeoga(相杵歌)」 has the positive emotion with the present situation. After all the poetic narrator in 「Sangjeoga(相杵歌)」 has mixed emotion of negative and positive.

The contrast 「Sangjeoga(相杵歌)」 with 「A miller's song」 and the identity of 「Sangjeoga(相杵歌)」 : The 「Sangjeoga(相杵歌)」 is similar in mixed emotion of negative and positive to 「A miller's song」. The 「Sangjeoga(相杵歌)」 is different from 「A miller's song」 in the object of positive emotion and negative emotion. The 「Sangjeoga(相杵歌)」 is based on the 「A miller's song」 of parallel composition and is transformed into the 「A miller's song」

of causal composition and is transformed into the universal words in the working folk song.

Key words : Goryeo Sockyo, folk song, 『Sangjeoga(相杵歌)』, 『A miller's song』,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이 논문은 2013년 12월 28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1월 2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4년 2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